

## 김종희 교수와의 간담회 스케치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방문한 김종희 교수의 소식을 들은 문협회원들이 갑자기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는, 속칭 번개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문인들이 참석. 즐겁고 알찬 대화를 나눴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구수한 입담, 그리고 애정이 넘치는 모습을 모처럼 가까워서 나누길 원하여 모인 문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킨 만남의 자리였다.

김종희 교수는 두 차례나 문학캠프에 강사로 참여하고, 미주문학 계간평의 필자로 글을 쓴 연으로 이곳 미주문인들과는 각별한 친분을 갖고 있다. 미주문학의 발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그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망라하는 작품집 『해외동포문학』을 출간하는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또 이 『해외동포문학』 24권 전집을 지난 문협신년 하례식 때 행사에 맞춰 익스프레스 메일로 부쳐 기증함으로써 미주문인들을 감동시킨 바 있다.

김종희 교수는 현재 한국 평론가협회 사무국장이며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날짜 : 2007년 1월 23일 장소 : 황태자 별실 기록 ; 윤석훈

김동찬 회장의 인사말과 이용우 소설분과 위원장의 김종희 교수 약력 소개로 간담회의 배는 출항했다. 문협이 마련한 화환 증정을 웹사이트 위원장인 오연희 시인이 화사한 미소와 함께 해 주었으며 김종희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감사의 정을 표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그와 보낸 시간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냐고 운을 뗀 후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야 의미있는 만남이 될 것이라면서 미주문인과의 인연과 우정이 돈독히 되기를 희망했다. 이어 문학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글을 써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작가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글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간담회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제 문학에서 공간적 개념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속초에 살던 이성선 시인(작고)과 섬진강 시인 김용택 등 지방에 살고 있지만 한국 문학의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신영철 소설가처럼 미주에서 활동하다가 한국 문학의 중앙에 소개된 것을 예로 들면서, 이는 그가 에베레스트 등반에 목숨을 걸었고 실제적 진실이 작품 속에서 육화되었기에 가능했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공간적 거주지가 아니라 오직 좋은 작품만이 해결사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 따라서 미주라는 공간적 거리가 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주에서 나온 좋은 작품을 들고 한국 문단에 소개할 수 있다면 기꺼이 심부름 하겠다. 문학에 대한 자기 정리와 좋은 작품을 많이 쓰기를 미주 문인들에게 부탁드린다. 제일동포 사회나 재중동포 사회와는 다르게 미주동포 사회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사실 동포문학이라 칭하는 것도 어느 면 문제는 있다. 문학 장르에 있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올소독스 문학 뿐만 아니라 판타지 문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대

적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동포문학에 대해서도 한국 문학적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 되어야 할 것이지 어떤 언어로 작품이 쓰여졌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구분법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문학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데 말하자면 국제적 시각이 필요한 사이버 세계, 인식의 전환, 한국 문학적 요소를 내포한 열린 시야가 바람직한 미주문학의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의 본질인 좋은 글을 쓰는데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원 드린다.

문인귀 시인의 현대 문예사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김종희 교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해방 이후 1950년대에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시절이었다. 문학은 표현의 기교와 미래지향적 성향을 내보이기 어려웠다. 1960년대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최인훈의 「광장」이 있었고, 1950년대 고갈되었던 감수성이 되살아났다. 특히 작가 김승옥에 의해 감수성의 혁명이 일어났다. 1970년대에는 김원일 등 분단문학이 출현 되었으며 윤홍길, 조세희, 이문구 등이 산업화 문제와 분단시대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들을 남겼다. 1980년대는 광주사태가 역사를 점령 하던 시대로 순발력 있는 시가 소설을 대신하여 활발히 씌어지던 시대였다. 이때의 시는 상징과 비유 그리고 암시적인 요소를 담고 시대 정신을 리드해 나갔다. 1980년대 중반 학생운동,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문제 등을 다룬 문학이 사회적 운동으로의 변화도 일어났다. 1990년대에는 형식 실험의 문학이 대두되었다. 사이버 문학과 판타지 문학이 그것이다. 다양성과 다원적 주의가 섞여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시대정신이란 시대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가, 혹은 시대 진행

방향의 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선취적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시대정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인귀 시인의 가곡 독창과 김종희 교수의 화답송이 이어졌고 극구 사양하던 오연희 시인의 노래로 시종 화기에애하던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용우 소설가, 김동찬 시인, 김종희 평론가의 조크는 회원 모두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했으며 문학과 버무려진 겨울밤은 그렇게 알차고 행복하게 저물어 갔다.